

“한·일의 일베·재특회 현상, 보수화라기보다 가벼운 행동 탓”

· 아사히신문 전 주필 와카미야, 한·일관계 악화에 우려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전 주필 와카미야 요시부미(65·사진)는 악화돼가는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사히신문에서 43년간 기자로 일한 언론인으로 197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이후 30년 넘게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에서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는 그를 지난 6일 만났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한국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와 일본의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우경화 현상을 보수화가 아닌 ‘열화(劣化)’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트위터와 같은 단문 형태의 인터넷 글쓰기를 하면서 반사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경화됐다기보다는 과거사 문제의 미묘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의’나 ‘사상’ 없이 가볍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학교에서도 이전처럼 인문교양역사를 많이 배우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나친 민족주의로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임 가능성은 사실 낮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과 요구,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센카쿠 영토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폭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일본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우파 세력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표를 의식해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아베가 이전 총리직에 있을 때보다 더 현실적이 됐다”며 “자수성가한 정치인으로 현실을 잘 보고 균형 감각이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좀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는 나라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아베의 가치관 외교에 대해서는 먼저 공통의 역사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버지와 관련한 경험 때문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에게도 아베의 스가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좀 더 자기 말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자민당 출신의 총리 4명이 총리명의로 사죄편지를 썼다며 “국가가 정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도 그때 국내 사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만든 방법이었다”며 “그렇게 비판만 받는 것이 조금 섭섭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생활을 돌아보는 책을 집필 중이라는 그는 “언론인으로서 한·일관계와 일본 정치가 나빠졌다는 데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언론계가 민족주의에 경도돼선 안되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와카미야 전 주필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일본 우경화의 실체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글 주영재·사진 김기남 기자 jjj@kyunghyang.com>

입력 : 2013-06-10 21:48:29 | 수정 : 2013-06-11 18:52:40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